

202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차 공개-민속 합동분과위원회 회의자료

- ▣ 일 시 : 2023. 3. 28.(화) 13:30~14:00
- ▣ 장 소 : 문화재청 1동 906호
- ▣ 출석위원 : 윤인석(위원장), 김왕직(위원장), 강동진,
김문수, 김이순, 김종현, 이광표, 이연경,
김기주, 김두규, 이향미, 최종희(이상 12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 고지사항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대-민속 합동분과 제1차 회의 안건 목록

【검토사항】

1

「철곡 매원마을」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1. 「칠곡 매원마을」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소재 「칠곡 매원마을」의 국가등록문화재(민속마을)로 등록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북 칠곡군 왜관읍 소재 「칠곡 매원마을」을 국가등록문화재(민속마을)로 등록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경상북도지사

(2) 대상문화재

- 문화재명칭(안) : 칠곡 매원마을
- 소재지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일원
- 시대 : 조선시대
- 등록대상
 - 등록구역 : 47,170m²
 - 개별건축물(12,746m²), 마을공동시설(8,963m²), 농경지(13,305m²), 마을길(12,156m²)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민속마을) 등록

(4) 추진경과

- ('22.10.14.) :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등록가치 있음'
- ('22.10.21.)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경상북도 → 문화재청)
- ('22.11.10.)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 ('22.11.11.) : 보완자료 요청(문화재청 → 칠곡군, 등록대상 검토 및 고증자료 등)
- ('22.12.01.) : 보완자료 제출(칠곡군 → 문화재청)
 - * 역사성보완(마을의 형성과정과 풍수지리 특성을 연계, 건립연대자료)
 - * 등록대상추가(동솔밭, 사송헌 터, 송단)
 - * 위치표기 및 현황사진(재실 관련 묘소, 공동우물터, 공동빨래터)

- ('23.01.11.) : '23년 제1차 민속문화재 분과위원회 '보류'(추가 조사 및 자료 보완 필요)
- ('23.01.27.)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추가 실시
- ('23.02.03.) : 보완자료 제출(칠곡군 → 문화재청)
 - * 개별가옥 건립연대 및 보수이력 관련 자료
 - * 등록구역도면(항공사진, 연속지적도)
- ('23.02.14.) : '23년 제2차 민속문화재 분과위원회 '조건부 가결'(등록구역 조정 필요)
 - * 이종렬 가옥, 이호석 가옥-안채 및 아산재-고직사 등록구역 제외
- ('23.02.28.) : '23년 제2차 근대문화재 분과위원회 '보류'
- ('23.03.14.) : '23년 제1차 근대-민속 합동분과위원회 사전협의 실시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22.11.10.)

- 매원마을은 조선후기에 형성된 마을로 근대기에 들어 마을의 영역이 확대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영남지방의 반촌과는 다른 형식으로 마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근현대시기의 마을 변화상이 주목된다. 동계 등을 통하여 전통을 계승함과 동시에 재실이 마을안에 건립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매원마을에는 기존 경상북도 도지정문화재 5개소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들도 포함한 마을 영역의 확산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일부 등록대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건립연대가 불확실하거나 건축적으로 당대 건축 기술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번 등록에서는 제외하고 향후 자료를 추가 확인하여 등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금번 등록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나 마을 전면에 위치한 농지는 마을 경관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가 되므로 마을구성요소로 등록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문화재위원 ○○○('22.11.10.)

- 매원마을은 광주이씨의 400년 세거지로서 오랜 역사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남인계 영남학파를 주도하면서 조선왕조 정치의 한 축을 형성하였던 인물들을 배출한 곳이다. 특히 입향조 이윤우와 그 후손들이 매원마을 중매에 터를 잡은 이후, 그 지손들이 상매와 하매(서매)로 분파하면서 지금의 마을을 형성하는 과정도 다른 마을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함을 보여준다.
- 마을 서쪽 경계(내백호)가 미약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비보수로 소나무[松]들을 식재하고 마을[洞]소나무[松] 밭("동솔밭")을 조성하고 그 지맥이 끝나는 마을 입구 감호당 앞에 소나무 동산을 조성하고 "송단(松壇)"으로 중시했음도 '생태마을'로서 매원마을의 특징이다. 특히 1950년 6·25 전쟁 당시 폭격으로 400여 채 마을 주택 가운데 60여 채만 남을 만큼 파괴·소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존과 복원을 통해 옛 모습을 지키려는 매원마을의 자발적·주도적 노력도 높게 평가

되어야 한다. 지정가치가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 그러나 다음 몇 가지 본질적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당당하게 영남의 3대반촌(하회마을 양동마을 매원마을)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정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다.
- II.에서 부분적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신청 12건 가운데 ‘용산재·관수재·아산재’ 3건은 후손들이 조상(이동유·이원호·이상철)을 추모하기 일제강점기(1931년)에 모두 지어졌다고 하였다. 왜 동일한 시기에 3개의 재실이 동시에 지어졌는지 조사되어야 할 부분이다.
- 매원마을이 역사적·민속적·건축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은 개별문건(고택 건물) 하나하나의 가치가 탁월함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라는 관점에서 마을을 형성하고 보존해왔다는 점이다. 동솔밭[洞松]·송단(松壇)·공동우물·사송헌(齋舍)·마을 앞 문전옥답(현재 蓮밭 조성)·마을 앞 가로수 매실나무[梅] 식재·옛마을길 등이 마을을 유기체로 만들고자 했던 흔적이다. 이들의 본래적 의미를 부활시킬 때 마을은 진정 ‘국가등록민속마을’로 지정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의견이다.

○ 문화재위원 ○○○('22.11.10.)

- 매원마을의 경우, 신청 대상 국가등록문화재가 건축물 12개소, 터 3개소 등 총 15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비교적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그러나 이 요소들만으로 씨족마을이자 역사마을로서의 가치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음
- 매원마을은 입향조 종택과 수평적으로 상매와 하매에 후손 집들이 입지한 뒤 19세기 이후로 기존 집 앞으로 1차 확장, 이후 뒤로 2차 중첩 확장하는 경향을 보여왔으며, 이러한 중첩과 확장을 설명할 수 있는 공간, 기능적 증거들에 등록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 결론적으로, 매원마을의 분과 계보, 입향 순서, 신분 관계에 따라 뚜렷한 위계를 보유한 공간구조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공간구성, 즉 씨족마을의 공간적, 기능적,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등록 대상의 확대가 필요함
- 매원마을은 주민들의 결속력과 마을을 보전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함. 또한 전통 세시풍속을 신세대 가족들이 즐길 수 있도록 체험 및 잔치형태로 재현한 주말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마을 보전과 활용에 힘쓰고 있음. 이에 매원마을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체험형 역사한옥마을로 보전하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2명 / 원안가결 12명